

“전국의 각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18년 전통의 NGO종합모니터단”

보도자료

2016. 12. 28. (총 34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08786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87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가 모든 국가기관들(행정·사법부 등 5부)을 제대로 감사하는지를 모니터·평가한 국감NGO모니터단 보고서

국정감사(20-1)종합평가회 및 국감 우수상임위·우수의원 시상식

◆ 일시 : 2016. 12. 28.(수)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하오며, 해마다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15대 국회 말부터 2016년도 정기국회까지 18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하고 엄정 평가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 대 인 법률연맹 총재 외 20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함께 “2016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2016년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2층)에서 개최합니다.

《시상식 지연 및 우수의원 선정관련 양해말씀》

- ① 원래 12월 2일 시상식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탄핵 등 시국이 어수선하여 12월 9일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대통령 탄핵이 연기되어 연기되었고, 장소관계로 연말(12월 28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② 이번 국정감사는 중간평가 F학점이었고 그후 특별히 나아지지 않았으며, 현재도 국회에 대한 국민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모니터단은 네가티브(Negative)가 아닌 포지티브(Positive)운동 단체로 국회(의원)를 격려하는 것이 국회 4대기능 강화와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주효하다고 보아 부족한 중에도 상대적으로 성실하고 국민민복을 위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우수의원은 예년에 비해 감축하였음)
- ③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참여단체 중에는 촛불집회 참여단체도 있고, 탄핵반대를 주도하는 단체도 있지만 모니터단 자체는 지난 18년 동안 여·야당이나 진보·보수의 한편에 서지 않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중에는 정파간 입장차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서 거시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인 이번 국정감사를 평가하여 이번 국감종합평가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는 이유는 입법부 등 국가 5부를 총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평가하며, 우수국회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우수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격려함으로써, 입법기능·재정과 권력통제기능 등 국회의 4대 기능의 회복·활성화를 통한 국민권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귀 언론사에서 국민(유권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유권자 정보’로서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 국정감사(20-1) 총평과 우수의원(우수상임위원장) 수상자 명단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7》

2016년도 국정감사(20-1) 우수상임위·우수의원 명단

(전국의 270개 NGO가 연대한 18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 우수 상임위원회(장)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더민주)
-------------------------	------------------------------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선정/현원	국정감사(20-1) 우수상 수상의원님 <<존칭 생략, 가나다 순>> 우수상임위는 1명씩 추가선정함. ()안은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정(정의당), 무(무소속)
국 회 운 영	5/28	기동민(민), 이만희(새), 이재정(민), 이 훈(민), 장정숙(국)
법 제 사 법	5/17	김진태(새), 박범계(민), 박지원(국), 정성호(민), 주광덕(새)
정 무	6/24	김종석(새), 박찬대(민), 정태욱(새), 제윤경(민), 채이배(국), 홍일표(새)
기 획 재 정	7/26	김성식(국), 김태년(민), 김현미(민), 박영선(민), 심재철(새), 이종구(새), 이해훈(새)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6/24	김경진(국), 김정재(새), 박대출(새), 박홍근(민), 송희경(새), 유승희(민)
교 육 문 화 체 육 관 광	7/29	곽상도(새), 김세연(새), 도종환(민), 박경미(민), 유은혜(민), 이동섭(국), 전희경(새)
외 교 통 일	4/22	김도읍(새), 박병석(민), 이인영(민), 이태규(국)
국 방	4/17	김종대(정), 김중로(국), 이철규(새), 이철희(민)
안 전 행 정	6/22	박남춘(민), 백재현(민), 유민봉(새), 이명수(새), 장제원(새), 진선미(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5/19	김성찬(새), 김현권(민), 위성곤(민), 정인화(국), 홍문표(새)
산 업 통 상 자 원	7/30	곽대훈(새), 김경수(민), 손금주(국), 우원식(민), 유기준(새), 이찬열(무), 홍익표(민)
보 건 복 지	5/22	김광수(국), 김순례(새), 성일종(새), 전해숙(민), 정춘숙(민)
환 경 노 동	4/16	김삼화(국), 이용득(민), 하태경(새), 한정애(민)
국 토 교 통	7/31	민홍철(민), 윤관석(민), 윤후덕(민), 이현승(새), 전현희(민), 정종섭(새), 주승용(국)
여 성 가 족	2/17	박주민(민), 신용현(국)
계	80/344 (23.26%)	기준은 상임위별 정원의 25%(동점자 예외) 이내 - 13개 본상임위만 수상의원은 73명 (총 299명중 24.41%)이며, 겸임 위원회(운영28, 여성가족17)포함 총 344명 중 우수의원상 수상자는 (새)29, (민)35, (국)14, (정)1, (무)1 총80명 (23.26%). 우수상임위원장 2명(새-1, 민-1)까지 포함하면 총82명 (23.84%) / 상임위와 정당은 국감당시 기준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우수국회의원 통계

정당등 통계는 국감당시 기준이며,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위원이 아니므로 통계에서 제외함

① 정당별 분석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 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전체
선정의원	29	35	14	1	1	80
전체의원	129	121	38	6	5	299
선정비율	22.48%	28.93%	36.84%	16.67%	20.00%	
검임상임위포함	147	139	44	8	6	344
선정비율	19.73%	25.18%	31.82%	12.50%	16.67%	23.26%

② 당선횟수별 분석 (우수 상임위원장 2인 포함)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계
선정의원	38	22	16	4	2	0	0	0	82
전체의원	132	70	47	34	10	4	1	1	299
선정비율	28.79%	31.43%	34.04%	11.76%	20.00%	0.00%	0.00%	0.00%	
검임상임위포함	165	78	49	36	10	4	1	1	344
선정비율	23.03%	28.21%	32.65%	11.11%	20.00%	0.00%	0.00%	0.00%	23.84%

③ 비례대표 / 지역구 분석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계
선정의원	20	60	80
전체의원	47	252	299
선정비율	42.55%	23.81%	
검임상임위포함	61	283	344
선정비율	32.79%	21.20%	23.26%

④ 성별 분석

구분	남성	여성	계
선정의원	60	20	80
전체의원	248	51	299
선정비율	24.19%	39.22%	
검임상임위포함	275	69	344
선정비율	21.82%	28.99%	23.26%

⑤ 비례/지역구 분석 (우수 위원장 2인 포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8	16	33.33%	강원도	8	3	37.50%
부산광역시	18	7	38.89%	충청북도	8	1	12.50%
대구광역시	12	4	33.33%	충청남도	11	3	27.27%
인천광역시	13	4	30.77%	전라북도	10	1	10.00%
광주광역시	8	1	12.50%	전라남도	10	4	40.00%
대전광역시	7	2	28.57%	경상북도	13	2	15.38%
울산광역시	6	0	0.00%	경상남도	16	4	25.00%
세종시	1	0	0.00%	제주도	3	1	33.33%
경기도	60	9	15.00%	계	252	62	24.60%

《 국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다. 》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는 숙연한 감사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감사위원(국회의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5~31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등”을 파악·대처하기 위해서도 ‘자리지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나마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 피감기관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에 대한 승복을 받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중복·반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반복질의로써 연중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알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국감직후에 있는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본 NGO모니터단의 출석·이석체크는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이상 결석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것이며, 둘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감정평가를 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감 총평 및 우수상임위, 모범·우수의원 선정

— 전국 270여개 NGO가 연대한 18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국감 평가회 겸 시상식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20인)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18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3~5명씩 매일 70여명, 연인원 1,000여명(온·오프라인)의 현장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하였고,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9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18년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상임위·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을 2016년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2016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정책감사도, 민생감사도, 여당 참여도 없는 F학점 국정감사는 의회민주주의 붕괴의 전조(前兆)이다

(국가안보, 경제불안 등 민생국감을 외면한 채, 국감 보이콧, 미르·K-스포츠택재단, 우병우 민정수석, 고 백남기, 송민순 전 외무부장관 회고록에 몰입한 정쟁에도 모자라, 마지막 날(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감)까지 막말파행하였다.)

1. 2016년도 국정감사는 F학점

국회의 헌법상 권한(헌법 제61조)이요, 국회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의정활동의 백미(白眉)인, 제20대 제1차년도(2016년도) 국정감사는 반의회, 반법치의 국감 보이콧과 반민생, 비민주적 행태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 낙제점(F학점) 국정감사였다.

2.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국감사상 초유의 국감 보이콧, 재·보충 감사마저 이뤄지지 않은 반쪽부실국감

이번 국정감사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경주 지진, 태풍 등 북한의 위협과 천재지변 속에 전개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다. 안보불안, 기상불안은 물론 일자리 불안, 경제침체 속의 불안, 가습기살균제 사용, 개인위생용품 불안 등 온갖 민생불안 속에서 전개된 2016년도 국정감사는 이러한 불안을 씻어주고, 국가를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들이 국정을 점검하고, 부정부패 요인을 척결하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그러나 9월 24일 국무위원(농림축산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의 국회 가결을 계기로 집권여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 하였다.

10월 4일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여야가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인물(최순실, 정유라 등)들의 부정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백남기 사인논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 등에만 집중하였고, 이에 대한 정쟁으로 인하여 일부 상임위원회(교문위, 보건복지위)에서는 낮에는 파행을 하고 밤에서야 국정감사를 재개하는 등 주파야감으로 자정을 넘겨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파행으로 인한 손실을 국감기간 연장으로 보충하겠다고 하였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일정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국감일정이 축소되고 말았다.

3. 정책 현안의 난맥상 발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영창발언 등등 아쉬운 국감

이번 국정감사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세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을 철저히 지적하고, 부실공사의 전형으로 떠오른 한미은행 사태 관련 의혹을 해소하였으며, 국민의 고충을 야기한 건보료 체계, 누진세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함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서 벌어진 한선교 의원과 유은혜 의원간 성희롱성 발언논란, 김제동씨 영창 발언 진상규명, 어기구 의원의 사실과악 없는(동명이인) 의혹제기, 정운찬 의원 발언, 이은재 의원의 질의 등과 피감기관의 국감불출석 사태,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기괴한 행태와 발언논란(새파랗게 젊은 것들에 수모), 투명인간이 된 김재수 장관 등 단편적인 사항만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회화화시켜 아쉬움을 더욱 크게 하였다.

특히, 국정감사 마지막 날(2016. 10. 21. 금.)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에도 불

구하고 순연히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저녁무렵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지칭하여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에 이른 것도 아쉬움을 남겼다.

4. 피감기관 증인 등의 불출석, 자료제출 거부 지연 등 국정감사 방해도 많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국감증인채택 논란으로 파행하는 구태를 보였고, 감사위원들의 피감기관장에 대한 호통, 막말도 여전하였다. 또한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부실 및 지연과 거부 등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장관은 국정역사교과서 초고본의 공개를 거부하였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중임과 비서실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하였다.

5. 2017년도부터라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

(1) 국감 진행은 파행 없이 헌법과 국회법대로 다수결원칙으로

국정감사 진행이 증인채택 논란 등으로 원활하지 못하여 종종 파행이 빚어졌고, 교문위의 경우에는 결국 한 명의 일반증인도 채택하지 못하였다. 제20대 국회 2차년도에서는 증인채택 등 의사진행에 있어서, 국감 보이콧이나 인위적인 파행이 아닌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비례대표 의원은 각 의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위원회에 보임해야

국정감사는 비례대표 의원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호기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의 직업이나 전문성과 상관없는 위원회에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비례대표 선정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케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20대 국회 2차년도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몇몇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과 관련성이 깊은 내용만을 질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상청이 유일한 지진 관련 기관은 아니다. 물론 관측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관련성을 보이지만, 타 지역 댐, 보가 지진단층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기상청에서 담당할 수는 없다.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질의를 하고, 피감기관장에게 호통만 치다보니, 더 중요한 점들을 짧은 시간 내에 놓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상청의 경우, 빗나간 예측 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더 필요했다. 지진과 같이 단기적이고 예측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호우나 날씨 정보 같은 일상적 예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게 기상청을 질타해야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비례대표 의원의 상임위원회 편성 및 상임위원회 배치근거 부족현황》

위원회	상임위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비례대표 비율(%)	상임위 배치근거 부족의원수	배치근거 부족의원 비율
법 제 사 법	17	0	0.0%	0	0%
정 무	24	5	20.8%	1	20.0%
기 획 재 정	26	2	7.7%	1	50.0%
미 래 창 조 과 학 방 송 통 신	24	8	33.3%	0	0.0%
교 문 화 체 육 관 광	29	4	13.8%	1	25.0%
외 교 통 일	22	1	4.5%	1	100.0%
국 방	17	4	23.5%	1	25.0%
안 전 행 정	22	3	13.6%	1	33.3%
농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19	1	5.3%	0	0.0%
산 업 통 상 자 원	30	3	10.0%	0	0.0%
보 건 복 지	22	7	31.8%	2	28.6%
환 경 노 동	16	8	50.0%	3	37.5%
국 토 교 통	31	1	3.2%	0	0.0%
계	299	47	15.7%	11	23.4%

* 상임위 배치근거 부족의 평가는 학력,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상임위 전문성과 일치되는 것을 단순 평가한 것임.

(3) 증인채택 논란 종식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대안 마련해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 내내 증인 채택문제로 주파야감 국정감사를 이어갔으나, 결국 1명의 일반증인 채택도 하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종료하였다.

증인채택에 합의한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가뜰이나 짧은 국정감사 시간이었는데, 많은 증인채택으로 국감도중 증인신문을 하느라 피감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일을 마련하고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6년 12월 1일 증인채택관련 증인신청 실명제법이 늦게나마 통과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4)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가능한한 화상국감으로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국정감사는 해외현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속한 알권리 확보가 어렵고, 국정감사의 효과도 반감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필수불가결한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화상 국정감사 등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0억7000만원의 국감예산이 사용되었다. 이는 전체 국감예산(37억2700만원)의 28.7%에 달한다. 감사위원수가 23명으로 같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보다 6배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

2015년에 외통위는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3개반으로 나눠 22개 공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실제 감사시간은 34시간45분이었으나 이동 비행시간은 100시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4.5시간을 날아가서 1시간 남짓 감사를 실시한 셈이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하여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해 구주반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미주반과 아주반 등은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국정감사 공개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하며,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을 선별해 방문하거나 화상국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5)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제출 근절되어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여전하였다.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될 정도였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든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6) 필요한 기관만을 피감기관으로 선정하여, ‘수박겉핥기’ 국감을 종식하라

691개에 달하는 과도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서 국감증인으로 채택만 해 놓고 질의는 거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제19대 국회보다는 피감기관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감일정이 축소되어 이같은 수박겉핥기 국정감사는 더욱 심화되었다.

제20대 국회 2차년도에서는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망식 피감기관 선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여 효과적인 국정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016년도 국정감사위원 활동평가

1. 우수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장

(1) 평가기준 및 방법

우리 모니터단이 18년 동안 사용해 온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1)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① 국민의 의혹사항에 대하여 규명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사례가 잘 지적되었는지 여부, ④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많았는지 여부, ⑤ 잘못된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 ⑥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 ⑦ 국정을 감사함에 있어서 국가적·사회적 이슈를 탁월하게 발굴·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 **절차적 측면**으로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파행을 예방·조기 수습한 점) ③ 의원 전원이 출석하였는지 여부, 국감진행 중 잦은 이석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④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⑤ 약속된 국정감사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⑥ 불필요한 정회 등이 많았는지 여부(감점) 등과,

3) **아울러** ① 국감NGO모니터위원회에 대한 방청허가의 신속성과 방청허가된 모니터 위원수가 적정했는지 여부, ② 시민단체 모니터석의 마련여부, ③ 모니터석이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 모니터 배려 사항 등도 고려하였고

4) 또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리더십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음.

(2) 선정결과 및 사유(抄)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10월 4일 이후 국정감사 내내 국정감사의 화약고로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놓고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발부,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결과,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의 회고록 등에 대해 논란이 전개되었다.

매일같이 파행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법사위가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은 권성동 위원장의 리더십과 여야 간사들의 협력, 그리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한 점 빈틈없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 모니터석 배려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여야 공방이 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가급적 자제토록 하고, 여야 구분 없이 좋은 질의에는 격려와 관심을 보이는 등 국감기간 내내 위원장의 리더십도 돋보였다.

수적 우위를 점한 야권은 연일 각종 의혹에 총공세를 펼쳤지만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 때문에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내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귀감이 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국감장에 아예 출석을 하지 않거나 질의시간에만 잠깐 참석하는 등 무성의를 보인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의원들이 전력으로 합심하여 정책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쌀값 폭락대책 등 정책점검과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농축산어민의 권익에 앞장섰다. 또한 농어촌 현실과 농어촌 대상 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산림청, 농협 및 수협, 마사회 등의 방만 경영과 모럴해저드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한진해운 사태, 세월호 인양이라는 ‘매머드급’ 이슈가 산적해 있었지만 파행이나 막말, 갑질 등의 구태를 보이지 않은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치렀다. 더민주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노련함과 냉철함으로 중재에 나서 원만하게 국감이 이루어졌으며,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모니터환경도 잘 유지하였다.

여당의 국감 보이콧 '원인제공자'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질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되는 논란이 있었지만 파행으로 비화되지 않고, 정책국감으로 돌아갔다. 위원장은 순조로운 국감 진행을 이끌면서도 국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을 이끌어 내고 대안을 찾아내려는 위원들의 질의를 도왔다는 평가이다.

초선의원들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나서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고, 피감기관이나 증인들이 '회피성 발언'을 할 때에 이를 매섭게 질타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의원 간의 언쟁도 잠깐 있었지만 국감 도중 '중국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안에 세월호 인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또 농림부로 하여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대책방안'을 내놓게 하였다. 또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나와 앞드려 눈물의 사죄를 하였고, LG CNS는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2.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1) 개요와 평가의 기본원칙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에 반영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본원칙은 1) 국정감사 기간 및 그 직전·직후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2) 국정감사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과 형식상 출석했으나, 이석이 과다하여 사실상의 질의가 없었던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다.

(2) 평가방법

- 01)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BEST, WORST)
- 02) 국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한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의 적정성 검토
- 03)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 04) 국정감사요구자료 · 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 05)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 · 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 06)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취
- 07)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국감관련 자료와 자평(自評) 등 분석 · 확인
- 08)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에의 설문조사 결과 등 의견 참조
- 09) 언론보도내용(단편적 평가라도)의 검토

《자세한 것은 지난 18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3) 중점 평가지표

- 10)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 11)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 12)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낭用に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 13)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14)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 15)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 16)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 17)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정책자료, 주요정책 · 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 18) 일문일답식(묻고 그 자리에서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지 여부
- 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등 특화된 정책국감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 20)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가 있었는지 여부
- 21)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 22) 건전한 시민운동의 발전과 순기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23)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24)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 18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지표 참조》

(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원칙

25) ① 국감보이콧으로 인한 불출석 외에 국감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후에,

② 형식상 출석은 했으나 사실상 질의하지 아니한 의원과,

③ 너무 이석이 잦거나 장시간 이석함으로써 타 의원의 질의내용과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의원과 똑같은 질의만 하는 의원은 국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평가는 하되 감점대상이며,

④ 그런 연후에는 질의 내용의 정성평가를 하여 선정함.

26) 평가결과와 성실성이 비슷할 때는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27) 평가결과와 선수(選數)가 같을 경우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협조여부와 평소 의정활동을 참작함.《국회의정 종합평가인 헌정대상 내용 등》

■ 2016년도(20-1) 국정감사의 쟁점

《2016년도 국정감사 주요 이슈 요목》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관련된 대형 거대 쟁점은 태풍피해 대책, 백남기 농민사망사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이고, 위원회별로는 검찰개혁, 법조비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한미약품 사태, 조세환급문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실효성과 부적절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정부의 대북정책 실효성, 가계부채 급증 문제, K스포츠 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에 참석한 경위,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조세정책, 경기부양대책, 금융시장 안정, 통신비 절감대책,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문제, 최순실 씨의 딸 대학입학과정 특혜여부, 누리예산편성문제, 한국사 국정교과서 원본 공개여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 수출전략,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자원 마련, 서울시 청년수당제도, 사드배치장소, 북한핵 대응, 사행사업문제, 김재수 장관 특혜대출, 정부의 원자력 정책, 쌀값안정화대책, 한진해운 사태와 전기료 누진제 개선방안, 잇따른 노조 파업문제,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정부의 특혜 의혹, 화학 제품의 안전성 관리 물류대책, SOC확충, 주택시장 안정화, 송민순 회고록 등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음.

《위원회별 2016년도 국정감사의 주요쟁점》

위원회	주요쟁점 키워드	비고
국회운영위원회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출석문제 최순실, 미르재단, 스포츠재단 문제 입법보좌기구 활성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회고록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합의
법제사법위	특별감찰관 사퇴 이유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문제 정운호 진경준 김형준 등 법조비리 문제 최순실, 미르재단, 스포츠재단 문제	
정무위원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 대우조선해양 및 한진해운 사태 주식시장 늑장 공시 문제 가계부채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증인신문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 소득세 인상 문제 경기침체의 원인 및 대책 가계부채 문제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문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과 가계통신비 문제 국가정밀지도데이터의해외반출 허용여부 경주지진 이후 원전 안전대책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의 문제 누리과정(무상보육)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특례 입학 문제 학교급식의 안전 및 비리 문제 고 백남기 사인 문제 연예인 블랙리스트	의원간 성희롱 사건 서울대병원 주임의사 증인
외교통일위원회	송민순 회고록 문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해법 사드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문제	
국방위원회	사드배치부지선정 문제 북한 핵도발 대응방안 및 핵무장론 병역기피 문제와 모병제	김제동씨 발언 논란
안전행정위원회	고 백남기 사망사건 사인 규명 고 백남기 부검영장 문제 서울시 안전관리 소홀 문제 지진관련 정부의 재난대응 부실 문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 인양 및 특조위 연장 문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어민보호대책 쌀값 폭락 중국어선 불법조연 근절방안	해임건의 김재수 농림부장관 투명인간 국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주지진 원자력 발전소 안전대책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외 자원개발 부실 문제 소상공인 보호 육성대책	

위원회	주요쟁점 키워드	비고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가습기 사망사고 화학물질의 치약등 생활용품 사용 문제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 장애인복지 등 복지정책의 난맥상 문제	고 백남기 목 념문제로 파행
환경노동위원회	성과급문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일자리 창출 대책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배출조적, 가습기 살균제 지진, 기상예보 문제	
국토교통위원회	주택가격 안정 대책 주거비대책 4대강 수질 문제 항공 등 물류대책 철도파업 대책	
여성가족위원회	화해와치유재단 문제	여가위 국감 최초 자정 넘 어 국감 진행

《국정감사 이슈에 대한 모니터 대학(원)생의 의견》

-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16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들만 얘기해서 상당 부분 질문이 반복 되었고, 피감기관은 그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아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혼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뜨거운 감자만을 말해서 매스컴을 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서로 부분을 나눠서 질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피감기관은 너무 주눅들어서 얘기하지 말고, 떳떳하게 공직생활을 해서 당당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지나치게 특정 이슈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로 인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문제제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 자세한 내용은 중간평가 이후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것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회의록으로 이외에는 10월 12일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중간평가 자료(www.goodlaw.org) 참조

■ 2016년(20-1)국감 특정이슈(최순실-미르-K스포츠) 집중현상 분석

《키워드(최순실-미르와 K-스포츠, 우병우, 고 백남기 사인 등)로 본 국정감사》

1. 최순실, 우병우, 송민순 키워드 분석

(국감종합판인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 나타난)

국정 운영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주요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2분에 시작해서 오후 22시 32분까지 진

행되어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감사시간은 8시간 20분이었다. 이 시간 동안 최순실은 100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71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25회 언급되었다. 운영위의 국정감사 실시간 중 ‘최순실’ 이름은 5분마다 한번 꼴로 거명되었으며, 이 3명의 이름은 국정감사 시간 중 약 2분 30초마다 한번 꼴로 거명되었다.

《국회운영위원 중 질의중 ‘최순실’ 거명 의원현황》

정당	소속의원수	‘최순실’ 언급 의원명	언급비율
새누리당	11	3(김도읍 민경욱 이양수)	27.3%
더불어민주당	11	9(강병원 김병욱 김한정 박완주 백혜련 송기헌 우상호 이재정 이호)	81.8%
국민의당	4	3(이용호 김관영 박지원)	75.0%
비교섭	2	1(노회찬)	50.0%
계	28	16	57.1%

반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언급 의원을 보면, 전체 28명의 의원 중 11명이 언급하였으며, 이중 9명은 새누리당 의원(이정재, 성일종, 이양수, 이만희, 지상욱, 강석진 권석창 민경욱, 김도읍 의원)이었고, 2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기동민 · 강병원 의원)이었다.

28명 중 감사위원 중 16명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거명하였으며, 10명이 송민순 전 장관의 이름을 거명했다.

‘최순실’이란 이름이 많이 거명된 위원회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월 22일 현재 국회에 올라온 84개 회의록 중 ‘최순실’이 언급된 곳은 13개 상임위원회 중 9개 위원회이며, 회의록 수는 23개였다.

《‘최순실’이 언급된 2016년도 국정감사 현황》

주의 : 국회 홈페이지 등재 회의록수는 11월 22일 기준임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2016.09.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2016.09.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국어원.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국립중앙극장.한국정책방송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6.09.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2016.10.04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2016.10.04	안전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016.10.05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6.10.0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2016.10.0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주)
2016.10.06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2016.10.1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016.10.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임업진흥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식재단.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2016.10.13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2016.10.13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2016.10.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2016.10.1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2016.10.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2016.10.17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2016.10.17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2016.10.18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6.10.18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법원.감사원.법제처.특별감찰관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10.21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미르’ 재단이 언급된 곳은 ‘최순실’ 보다 많아 45곳이었다. 회의록이 올라온 위원회중 언급이 안된 경우는 국방위원회 밖에 없었다. ‘K스포츠’ 재단이 언급된 회의록은 22곳이었다.

《위원회별 ‘미르’ 재단 언급 국정감사현황》

국회 홈페이지 등재 회의록수는 11월 22일 기준임

위원회	회의록수	‘미르’재단 언급 회의록 병	위원회	회의록수	‘미르’재단 언급회의록 병
국 회 운 영	3	3	안전행정	7	2
법 제 사 법	6	6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0	3
정 무	5	5	산업통상자원	5	2
기 획 재 정	5	5	보건복지	6	2
미래창조과학 방 송 통 신	5	3	환경노동	5	3
교 육 문 화 체 육 관 광	5	4	국토교통	7	2
외 교 통 일	6	5	여성가족	0	0
국 방	9	0	계	84	45

* 참고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정보위 국감을 제외하고 전체 공개되어야 할 회의록은 145개임(오전 오후 구분 국감, 외교통일의 재외공감 국감 등 포함)

《‘미르’재단 언급 국정감사 현황(45곳)》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2016.09.26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2016.09.2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2016.09.26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2016.09.27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6.09.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국어원.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국립중앙극장.한국정책방송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6.09.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국가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2016.09.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식재단
2016.09.29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학교법인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사발전재단.한국잡월드.건설근로자공제회
2016.09.29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감사교육원.감사연구원
2016.09.30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정보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
2016.09.30	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
2016.10.03	외교통일위원회	주케냐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2016.10.04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2016.10.0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016.10.05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6.10.05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주)
2016.10.06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2016.10.0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주)
2016.10.06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2016.10.0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우체국물류지원단.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우체국시설관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데이터진흥원
2016.10.07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충북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2016.10.1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016.10.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임업진흥원.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식재단.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2016.10.13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2016.10.13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2016.10.13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2016.10.13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2016.10.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2016.10.14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2016.10.1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2016.10.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2016.10.1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한국재정정보원
2016.10.14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6.10.14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1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2016.10.14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2016.10.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2016.10.17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2016.10.17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2016.10.18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6.10.18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법원.감사원.법제처.특별감찰관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에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10.21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2016년 10월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 대해서 59회, 최순실 25회, 미르 22회, K스포츠 15회, 송민순 전 장관 31회 거론되었다.

질의 중에 우병우 수석을 거명한 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의 감사위원 중 12명으로 전체 의원의 70.6%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거명하였으며, 야당 의원 중

10명 중 9명이 거명하여 90% 언급률을 기록했다. 회고록 파문이 일어난 송민순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17명의 의원 중 윤상직 의원 등 9명이 언급해서 전체의원의 절반이 넘게(52.9%) 언급했다.

법무부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03분에 시작해 오후 6시 55분까지 진행되어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감사시간은 약 6시간 9분 정도였는데, 우병우, 최순실, 송민순 전장관의 이름이 거명된 것은 125회이므로 2분57초마다 한번 꼴로 감사 중 이 세명의 이름이 거명되었다.

《법무부 국정감사 중 ‘우병우 수석’ 을 거명한 의원 현황》

정당	의원수	‘우병우’ 거명 의원명	언급비율
새누리당	7	4(주광덕 여상규 오신환 윤상직 의원)	57.1%
더불어민주당	7	6(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정성호 조웅천 의원)	85.7%
국민의당	2	1(박지원 의원)	50.0%
비교섭	1	1(노회찬 의원)	100.0%
계	17	12	70.6%

우병우 국정감사 당시 민정수석이 거명된 국정감사 회의록은 20개였는데, 9개 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거명되었다.

《국정감사 중 ‘우병우 수석’ 을 거명한 국정감사 현황(20개)》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2016.09.26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2016.09.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국어원.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국립중앙극장.한국정책방송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6.09.29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감사교육원.감사연구원
2016.10.04	안전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016.10.05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2016.10.05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6.10.06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2016.10.0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주)
2016.10.07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2016.10.1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016.10.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임업진흥원.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식재단.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2016.10.13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2016.10.13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2016.10.14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2016.10.17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2016.10.17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2016.10.18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법원.감사원.법제처.특별감찰관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에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10.21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3. 고 백남기씨 사인문제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 거명횟수는 64회이며, 22명의 의원중 15명이 거명을 하여 언급률은 68.2%이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역시 고 백남기씨 관련 사인 및 영장관련 질의를 하였으나, 고 백남기씨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더 살펴보면, 고 백남기 사건을 비껴간 의원 중 이명수(새) 의원은 서울시 치안대책, 비간부직 사기문제 양양대책, 박순자 의원(새)은 성범죄 및 지하철 범죄를 질의하였고, 홍철호 의원은 의경대책과 보복 운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였으며, 황영철 의원(새)은 이화여대 경찰과건 문제를 질의하였다. 더불어 민주당 이정우 의원은 고 백남기 관련 서울시집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이름만 거명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백남기 사건 질의를 하였고, 국민의 당 이용호 의원은 우병우 씨 아들 운전병 채용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서울시 경찰청 국정감사는 서울시 국정감사 이후에 오후 늦게부터 시작해서 실제 국정감사 시간은 4시간 15분에 불과하였으나, 총255분 중에서 3분 58초마다 한번 꼴로 백남기씨의 이름이 거명되었다. 이날 이슈는 고 백남기씨 사망사건 관련 시위관리, 고인의 사인 및 영장집행 관련과 우병우씨 아들 운전병 채용관련 질의였다.

이틀 뒤인 10월 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씨는 62회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안전행정위원회의 치안분야 국정감사는 거의 ‘고 백남기’ 국정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 중 ‘고 백남기’ 씨를 거명한 의원 현황》

정당	소속 의원수	‘고 백남기’ 거명 의원수	언급비율
새누리당	10	6(유재중 유민봉 윤재옥 장제원 강석호 박성중 의원)	60.0%
더불어민주당	9	8(진선미 표창원 박남춘 김영호 백재현 소병훈 이재정 김영진 의원)	88.9%
국민의당	3	1(장정숙 의원)	33.3%
계	22	15	68.2%

《 ‘고 백남기’ 씨가 거명된 12개 위원회의 국정감사 현황(24개) 》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2016.09.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2016.09.2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6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2016.09.27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6.09.29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10.04	안전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016.10.04	안전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2016.10.04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10.05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6.10.05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2016.10.06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2016.10.0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주)
2016.10.13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2016.10.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2016.10.14	국방위원회	국방부.합동참모본부.병무청.방위사업청.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2016.10.14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2016.10.14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2016.10.14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17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2016.10.17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2016.10.18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법원.감사원.법제처.특별감찰관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10.21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고 백남기씨 추모 묵념과 관련해서 파행을 빚었던 보건복지위원회의 10월 14일

국정감사 역시 ‘백남기 씨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분석해 보면, 당일 고 백남기는 128회 거명되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익일은 15일 2시 43분까지 무려 13시간 35분(휴식시간 및 파행시간 제외)정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22명 의원중 18명의 의원이 질의중 고 백남기씨의 이름을 거명했다. 이외에 새누리당 의원 4명은 정책질의를 하였는데 김순례 의원은 한약조제전문약국 문제, 강석진 의원은 원격진료 문제, 김명연 의원은 사설구급차 문제, 최도자 의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문제 등을 질의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고 백남기’ 씨를 거명한 의원 현황》

정당	소속 의원수	‘고 백남기’ 거명 의원수	언급비율
새누리당	9	6(김상훈 송석준 김승희 박인숙 성일종 윤종필 의원)	66.7%
더불어민주당	9	9(양승조 인재근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오제세 전해숙 정춘숙 의원)	100.0%
국민의당	3	2(김광수, 천정배 의원)	66.7%
비교섭	1	1(윤소하 의원)	100.0%
계	22	18	81.8%

4. 송민순 회고록 관련

10월 14일 조간에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과 함께, 2007년 우리가 유엔인권결의안에서 기권한 사유가 이렇게 보도가 됐다.

이 회고록과 관련해 10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37회 언급되었다.

22명의 의원중 11명의 의원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을 언급하면서 질의를 하였는데, 새누리당은 6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 언급을 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중 ‘송민순’ 장관을 거명한 의원 현황》

정당	소속 의원수	감사중 ‘송민순’장관을 거명 의원수	언급비율
새누리당	10	6(정양석 윤영석 원유철 윤상현 홍문종 김도읍 의원)	60.0%
더불어민주당	10	5(김경협 문화상 이석현 원혜영 강창일 의원)	50.0%
국민의당	2	0	0%
계	22	11	50%

송민순 회고록은 3개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6개 국정감사장에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언급되었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언급된 국정감사 현황》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2016.10.14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6.10.17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2016.10.18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법원.감사원.법제처.특별감찰관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2016.10.21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 2016년도(20-1) 국정감사 피감기관장, 증인의 황당한 답변들

1.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검찰수사 종료

10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답변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하였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전경련이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검찰 수사 중으로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야당의원들은 전경련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한 것이 사실상 준조세에 해당한다며 공세를 더했다.

2. 백승석 경위, 코너링이 좋아서

경찰이 ‘운전병 꽃보직’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을 “코너링이 좋아 뽑았다”고 해명했다.

10월 4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승석 서울경찰청 경위는 우병우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이유에 대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운전이 정말 남달랐다”며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했다. 백 경위는 우 수석 아들을 서울경찰청 이상철 차장의 운전병으로 선발한 당사자이다.

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MS오피스는 MS에서만 팔고...

지난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조 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 교육청이 MS오피스와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

을 일괄 구매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의혹을 제기했고, 조 교육감은 “MS오피스는 MS에서만 팔고 다른 데에선 살 데가 없지 않느냐”며 “한글도 그렇다”고 답했다.

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법을 잘 몰라서

9월 27일 오전에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최성준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방통위 상임위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등 국감 증인들도 이날 오전 10시까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윽고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이들은 15~20분 정도 늦게 국감장에 들어왔다.

이날 오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상진 의원이 (최성준 방통위원장에)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판단이 적절치 못해 송구스럽다. 3당 간사가 협의가 되서 개의회가 정해져야 하는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3당 간사 사이에서 개의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잘못 판단했다”며 “이에 '그럼 아직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국회법을 잘 모르고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지내며 30여년간 법조인으로 지낸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회법을 제대로 몰라 국감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설명에 야당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5. 고대영 KBS 사장, 답변하지 마

10월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고대영 KBS 사장이 방송사 간부에게 “답변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KBS는 자체 진상 조사나 실태 조사는 안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고대영 사장은 “쌍방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사할 내용도 아니고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못미친 것으로 안다”라며 “이 사안이 검찰 수사 중인데 KBS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

은 “일선 취재 기자는 이에 대한 뉴스를 작성했는데 방송을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나”라며 국감장에 배석한 보도본부장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 사장은 “보도본부장은 보도 책임자인데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기사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직접 묻는 것은 언론 자유의 침해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이 보도본부장에게 재차 답변을 촉구하자 고 사장은 “답변하지 마”라고 발언을 했고, 고 사장의 태도에 야당 쪽의 반발이 이어지자 신상진 위원장이 국감중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6.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견 목숨을 걸고 하는데

9월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장직 수락하기 전에 혹시 청와대로부터 교육부로부터 협조요청 같은 거 받은 거 없습니까?“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언성을 높여) 이견 목숨을 걸고 하는데 교육부나 청와대에서 이 직책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

이날 화장실에 간다며 나갔는데 의원들을 “새파랗게 젊은 것 들“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국감장에 파문이 일었다.

▣ 2016년도(20-1) 국정감사위원(국회의원) 홈페이지 활용도

**국정감사자료 홈페이지 등 온라인게시 29.1%(19대 50%)로 19대보다 크게 저조
환경노동위원회 감사위원은 68.8% 게시, 외교통일위는 17.4%에 불과**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현황 중에 안내된 국회의원 홈페이지(블로그 등 포함)에 국정감사 자료(보도자료나 질의자료, 동영상 등 활동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 자료, 단순 일정이나 보도된 언론기사는 제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10.4.~10.6.), 국회의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299명 중 87명인 29.1%만이 국정감사 활동내역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조사 중 홈페이지가 있으나 연결이 안 된 경우, 페이스북 등 가입을 해야 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했음)

위원회별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16명의 감사위원 중 7명이 올려놓아 43.8%의 게시율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무위원회가 37.5%, 다음은 안전행정위원

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36.4%로 높았다. 가장 게시율이 저조한 위원회는 외교통일 위원회로 22명의 감사위원 중 3명만 국정감사활동내역을 올리²고 있었으며, 인터넷 분야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24명의 감사위원 중 5명만 국정감사활동내역을 게시하고 있었다.

초선의원 경우에는 대부분 국회 홈페이지 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개인sns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서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20대 국회 1차년도 감사위원 홈페이지 국감자료 게시현황》

위원회	감사위원수	국회를 통해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한 의원명	홈페이지 소개의원비율	홈페이지에 국정감사자료게시한 의원명	국감내용 게시의원 비율
법 제 사 법	17	11	64.7%	5	29.4%
정 무	24	18	75.0%	9	37.5%
기 획 재 정	26	16	61.5%	7	26.9%
미 래 창 조 과 학 방 송 통 신	24	15	62.5%	5	20.8%
교 육 문 화 체 육 관 광	29	20	69.0%	9	31.0%
외 교 통 일	22	21	95.5%	3	13.6%
국 방	17	10	58.8%	4	23.5%
안 전 행 정	22	15	68.2%	8	36.4%
농 립 축 산 수 해 양 산	19	15	78.9%	6	31.6%
산 업 통 상 자 원	30	19	63.3%	8	26.7%
보 건 복 지	22	16	72.7%	8	36.4%
환 경 노 동	16	9	56.3%	7	43.8%
국 토 교 통	31	17	54.8%	8	25.8%
계	299	202	67.6%	87	29.1%

〈참고 제19대 국회 2015년도 국회의원 홈페이지 국정감사 활동 내역 게시현황〉

위원회	감사위원수	홈페이지 자료게시한 의원수	홈페이지게시율	위원회	감사위원수	홈페이지 자료게시한 의원수	홈페이지게시율
법제사법	16	8	50.0%	안전행정	21	8	38.1%
정무	24	13	54.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9	47.4%
기획재정	26	17	65.4%	산업통상자원	30	18	6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23	8	34.8%	보건복지	21	10	47.6%
교육문화체육관광	30	15	50.0%	환경노동	16	11	68.8%
외교통일	23	4	17.4%	국토교통	31	19	61.3%
국방	17	8	47.1%	합계	297	148	49.8%

■ 2016년도(20-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국감초반 여당의 국감보이콧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대폭 축소되었고 국가위임사무보다 단체장 관련 국감질의 집중 여전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6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반 증인으로 2개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참고로 지난 19대 국회 4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5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집행상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며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나 법률의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준비는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직접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이낙연 전남지사는 자처하여 업무보고를 직접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현안문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여부가 관심사항이었다. 대상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였다.

《지자체 단체에 대선 출마의사를 직접 질의한 현황》

■ 10월 4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이용호 위원 최근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국가의 미래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선을 출마하시는 거지요?

강석호 위원 강석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어느 위원님이 대선에 관한 의사를 시장께 여쭙았는데, 어떠세요?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10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홍철호 위원 제가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어떻게, 출마하실 겁니까?

장제원 위원 이(모병제 문제) 논란을 가지고 대선 출마하실 때 확실하게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우선 전국 최초로 연정을 도입해서 정말 협치의 모범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칭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대선주자 중 한 분으로 거론되시는 분으로서 소신껏 우리 국방의 참 민감하고 공격도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소신 밝혀 주시고 공론화를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그런 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대선 출마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밝히

지 않으시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여쭙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도정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아까 내년 1월에 대통령 출마 결정을 한다는데 지사직 버리고 대선에 뛰어든 것입니까? 옛날에 김문수 지사처럼 갖고 뛴 것입니까?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국감보이콧 여파로 취소되거나, 현장시찰로 대체되어 사실상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국정감사만 진행하였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	위원회 감사반	감사 일자	특징 및 내용 등
전라남도	도지사 이낙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9.30.금	반쪽국감(새누리당 의원 불참) 쌀값 하락과 저소득층에 대한 쌀의 국비지원, 친환경농업의 확대 필요성, 동물복지형 한우사육단지의 조성 필요성, 한우 수출 확대 방안의 검토,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타격을 입게 된 광양항 문제, 해양수산업복합벨트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재원 확보 방안, 천일염 생산여가를 위한 대책 마련
서울시	시장 박원순	안전행정위	10.04.화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구의역 사고 7조원 채무 감축
		국토교통위	10.11.화	메르스 사태와 구의역 사고, 경주 지진 등 시민안전문제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안전행정위원회	10.05.수	연정 문제, 모병제 발언문제
		국토교통위	10.10.월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의 지역 편중
제주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위	10.7.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 만전 최근 인구 유입,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의 문제 중국에 편중된 관광객의 다변화, 외국인 범죄 전담조직 인력 확충 필요성 제주 제2공항 관련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해소대책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0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10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진행되었는데,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관급공사가격 공개 문제, 청년수당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시간 동안 길게 홍보성 발언을 하여 ‘여기가 개인 홍보장이예요?’라는 반발이 있었다. 13일에는 성남시 청년수당 문제로 증언을 하였는데,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문제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 보이콧, 최순실 게이트와 고 백남기 사인, 송민순 회고록으로 뭉갠 통탄스러운 불량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단순히) 법률상의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61조가 국정감사라는 헌법적 결단을 내린 제도입니다. 국회 내에서, 혹은 국회와 행정부 간에, 혹은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간에, 혹은 국회와 대통령 간에 어떠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적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저는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9.29.감사원 국감 마무리 발언 중에서

- 2016년도 국정감사는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으로 함)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는 9월 7일 제346회 정기국회 4차 본회의에서 ‘국회일정을 고려하여’라는 면피성 이유로 ‘2016년도 국정감사는 정기회 중에 실시한다’는 201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의안 번호 2196호)’을 의결하였으며, 따라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국감법 제2조 본문에 의한 국정감사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 2016년 9월 21일 우상호의원 등 2인의 130인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9월 24일 0시 57분경 제346회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재석 : 170, 찬성 : 160, 반대 : 7, 무효 : 3)됨에 따라,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부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등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온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 일주일 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2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진행한 국정감사 보이콧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4일부터 국정감사가 정상화되었다.

또한, 10월 3일 일요일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 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10월 15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를 19일까지 연장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상임위별로 진행 상태가 다른 만큼 상임위 별로 탄력적으로 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 2016년도 국정감사의 특징은 4·13총선의 민의를 반영하여 선출된 299명으로 새로운 국회의원(전체 국회의원의 44%인 132명이 초선이었음)들이 실시한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고, 지난해(2015년도)와 같이 ‘국정감사 직전에 여야가 모두 선거구 개편 관련으로 인해 내용이 있었고, 특히 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인해서 어수선했고, 야당의 경우에는 당개혁과 대표의 재신임연계로 인해 어수선했던 가운데 실시’ 한 것과 확연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국정감사는 첫주부터 98개 대상기관이 미실시되었고, 137개 기관이 여당의 참여가 없는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었다.
- 감사위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최다선인 외교통일위원회 서청원 의원(8선)을 비롯하여 299명이었다.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국정감사기간 중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을 하여 교섭단체 의원수가 변동되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무소속이며, 감사위원은 아님)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현황〉

10월 4일 기준

교섭단체/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교(%)
새누리당		112	17	129	43
더불어민주당		109	13	122	40.67
국민의당		25	13	38	12.67
비교섭단체	정의당	2	4	6	2
	무소속	5	0	5	1.67
계		253	47	300	100

- 2016년도 대상기관은 2015년도 국정감사의 경우 708개 기관이었으나, 올해에는 691개 기관이었다.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국가기관 295개,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30개 및 공공기관 326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은 지난해 77개 기관에서 40개 기관으로 감소하였다.
- 국정감사 일수는 전임상임위원회의 경우 9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25일간이었으며,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 여성가족위원회 2일(1일 시찰)과 운영위원회 2일 도합 4일간 실시되었으며, 감사기간 중 감사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161일(겸임위 제외 158일)이었으며, 교문위의 1일차 국정감사는 연기해서 3일차에 실시하였고,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일부 취소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2일씩 늘었으나 국정감사 일정에 변동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총 감사시간은 1216시간 43분(2015년: 1352시간 41분, 2014년

: 1467시간 46분, 결임 제외 통계)으로 지난해 보다 약 136시간 정도 대폭 줄었으며, 전체 감사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10월 4일 정상화 이후만 계산할 경우 98.28%로 지난해보다 높아졌으나, 새누리당이 보이콧한 첫주를 포함할 경우에는 88.10%로 매우 저조하였다.(2015년도 93.7%, 2014년도 93.77%, 2013년도 97.2%)였다.
(결임위 국감, 시찰 제외)

-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2015년도와 같은 십수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하였으며, 국회본청에서 이루어진 80회(결임위 포함 83회, 지난해 73회)의 국정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록으로 제공되었으며, 제18대 국회 2010년도 농림수산물위원회에서 외부 국정감사를 녹화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이번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부국감과 국회방송 생중계 국감을 영상회의록에 올려놓아 총 97개(결임위 4개)의 영상회의록(2016. 10. 25.기준)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6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지난해)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 용일수 (지난해)	화상모니터 링가능 영상회의록 (지난해)	의원 출석률 전체/정상화이후만 (지난해)
법제사법 (권성동)	17	72(72)	12(12)	101:49 (119:04)	2(2)	5(6)	90.2%/96.8% (100%)
정 무 (이진복)	24	44(44)	11(13)	104:28 (102:29)	9(6)	9(8)	99.6% (94.6%)
기획재정 (조경태)	26	28(28)	12(12)	88:45 (119:24)	8(6)	9(8)	99.6% (92.9%)
미래창조 과학방송 통신 (신상진)	24	78(77)	12(11)	80:30 (97:14)	8(8)	10(11)	94.2%/97.7% (86.5%)
교육문화 체육관광 (유성엽)	29	116(118)	12(12)	153:30 (143:21)	11(8)	11(10)	78.7%/97.0% (97.5%)
외교통일 (심재권)	22	41(30)	14(15)	43:56 (67:57)	4(3)	4(3)	76.1%/100% (85.87%)
국 방 (김영우)	17	53(52)	13(12)	50:53 (68:54)	5(4)	5(6)	83.7%/90.8% (94.8%)
안전행정 (유재중)	22	31(34)	12(12)	72:42 (106:59)	5(5)	6(13)	100.0% (95.2%)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김영춘)	19	35(42)	14(13)	101:47 (116:56)	5(5)	6(11)	83.3%/99.3% (98.1%)
산업통상 자원 (장병완)	30	56(55)	12(12)	103:21 (105:22)	8(7)	8(8)	86.7%/100% (94.0%)
보건복지 (양승조)	22	32(32)	12(11)	112:27 (107:28)	6(7)	8(9)	84.1%/97.7% (93.3%)
환경노동 (홍영표)	16	58(59)	11(12)	97:51 (96:05)	5(7)	7(9)	86.1%/100% (87.5%)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지난해)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 용일수 (지난해)	화상모니터 링가능 영상회의록 (지난해)	의원 출석률 전체/정상화이후만 (지난해)
국토교통 (조정식)	31	29(36)	11(11)	104:44 (101:28)	4(2)	5(5)	83.0%/99.1% (95.3%)
계	299 (297)명	687 (694)개	158 (158)일	1216시간43 (1352:41)	80 (73)일	97(107)개	88.10%/98.28% (93.7%)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300명중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포함하면 감사시간은 37시간 36분(지난해 20시간 35분)이 더 증가함.
3. 외교통일위의 감사대상기관은 해외국정감사까지 포함된 것임(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함)
4.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은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 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2016년 10월 25일 기준임, 참고로 지난해는 2015년 11월 8일 기준임)

< 결임 상임위원회 통계 >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감사대상 기관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지난해)	국회사 용일수	화상모니터 링가능영상 회의록	감사위원 출석률 (지난해)
국회운영 (정진석)	28	8(8)	2	21:42 (20:02)	2	3(3)	100% (96.4%)
여성가족 (남인순)	16	6(6)	1	15:54 (11:35)	1	1(1)	100% (100%)

※ 이상의 모든 수치는 국회법상 비공개인 국회정보위원회는 제외된 것임.

- 특징있는 파행을 소개하면, 감사기간 중 2016년도 상임위원회는 증인채택논란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일 동안 파행을 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고 백남기씨 추모 묵념’으로 인해 파행성 정회를 하였으며, 외교통일위원회가 ‘위원장의 위안부 합의 철회 개회사 관련’ 파행성 정회를 하였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은 끝내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 때문이 아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죄의식 없는 확신범’ 발언으로 파행하였다.
- 국정감사 중 결석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은 국감정상화 전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결석을 하였으며, 정상화 이후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다.
- 이번 국정감사에는 그동안 잠잠했던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핵심인 최순실씨 모녀가 등장하였으며, 거의 전 상임위원회에 논란이 전개되었다. 아울러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 고 백남기씨 사망 관련이 집중 이슈화되었다.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 경주지진·태풍 등 기상이변 대책, 원자력 안전대책, 일자리대책, 북핵 미사일 등과 관련한 사드 배치 장소 논란 등도 조명되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 실상과 공기업 부채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끝>